

내수 살리기 속도전 돌입한 정부... 0%대 성장 탈출 안간힘

정부가 저성장 탈출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세입경정을 제외한 순증 규모만 20조원을 넘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연내 0%대 성장률에서 탈출하고 1%대를 방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두 축으로 한다. 세입경정을 제외하면 총 20조2000억원 규모다.

침체된 내수 회복에 15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안정 강화, 소상공인 제기 등에 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을 '속도'로 꼽았다.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올해 성장률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1.8%로 관측했는데,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수정 전망치가 반토막 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다수 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0.8%로 하향조정했다.

1·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 0.2%p 제고 건설경기 부진·미 관세 협상은 하방요인 재정 단기부양 너머 구조개혁 과제 남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각 1.0%로 관측했다.

이번 추경을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는 연간으로 치면 0.2%p다. 올해 연내 집행만 보면 0.1%p 상승 효과를 낼 거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지난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지난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은 각각 자체적인 효과가 있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이를 반영하겠지만, 민간 부분의 경제활동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외 영향을 많이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라 0.2%p 상승 효과를 반영하되 기계적으로 더하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의 연내 성장률 제고 효과는 각 0.1%p다. 수정 전망에서 현 경기 상황보다 0.2%p가 상향된 수치가 발표될 거라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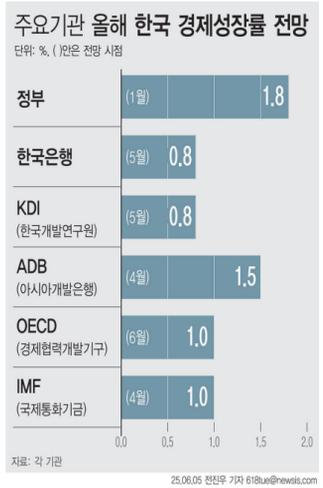
국내 내수경기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인해 진작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국내 건설공사 실적은 전년 대비 21% 급감해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기업은 금리와 추경 효과로 개선될 수 있다"며 "하지만 건설업은 수주도 적고 PF 대출 구조조정도 끝나지 않아 회복이 어렵고, 수출 제조업도 여건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변수가 향후 경제전망에 미칠 영향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하방요인이다.

새정부 출범 후 보름 만에 외교·안보 체계를 갖추며 대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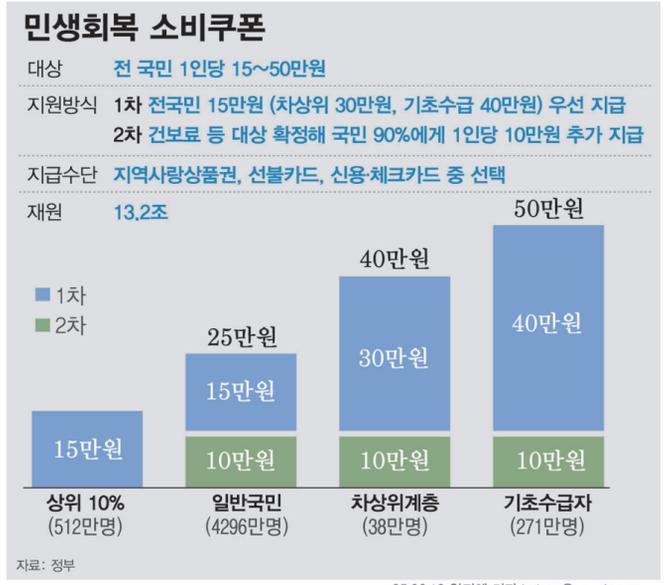
정규철 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p 오르면 KDI 전망으로는 0.9%가 된다"며 "하지만 대외 변수가 커서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훨씬 좋아질 수도 있다. 관세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외 요인에 대해 재정을 미리 투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관세 협상은 미국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예 등 임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재정을 통한 단기적 성장률 부양과 더불어 장기적인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실장은 "정부 규제가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화력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등 비효율적 재정지출 항목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오전을 통해 추경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뉴스스

최연소 '손솔'까지... 영광 출신 22대 국회의원, 역대 최다 6명

22대 국회에 전남 영광 출신 국회의원이 6명이 이름을 올리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이 동시에 국회에 입성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최근 국회에 입성한 손솔 의원은 만 30세로 이번 국회에서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상징적인 타이틀까지 갖게 됐다.

◆손솔 의원, 국회 입성...고향 일은 곧 내 일

손솔 의원은 지난 4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비례대표 15번 순번으로 의원직을 승계받았다.

그는 영광읍 녹사리 출신으로 영광중앙초, 영광여중, 해동고를 거쳐 이화여대에 입학해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학창 시절부터 청년 정치의 길을 걸어온 그는 '흙수저당'을 창당하며 최연소 당 대표로 주목을 받았고 청소년 참정권, 청년 주거 문제 등 사회적 이슈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국회 입성으로 그간의 활동이 제도권 정치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지 관심이이다.

동향 출신 정치인 6명 국회 대거 진출... 정당별 다양

장세일 영광군수 "고향 발전 마중물, 정책 공조에 최선"

의원직을 승계한 직후 손 의원은 지난 18일 고향 영광을 찾았다. 영광군청을 방문해 장세일 군수 등과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영광에서 나고 자란 만큼 고향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며 "고향 일이라면 제 일처럼 여기고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광읍·군서면·군남면·염산면...고르게 분포된 의원들

흥미로운 점은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영광 출신 의원 6명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 않고 군 전체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한 곳은 군서면과 군남면이다. 최근 국회에 입성한 손솔 의원은 유일하게 영광읍(녹사리) 출신이다.

먼저 조인철 의원(민주당 광주 서구갑)과 서양진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등 2명은 군서면 출신이다.

군남면 출신 의원도 2명이다. 장종태 의

원(민주당 대전 서구갑)은 어린 시절 대전으로 올라와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마쳤으며 이후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민선 6~7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로 통한다.

같은 면 출신인 정진욱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갑)은 2011년 시민통합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해 민주당, 새정치연합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거쳐 현역 운영역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 후 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염산면 출신으로 국민의힘 김대석 의원이 있다. 그는 빈농 출신으로 함평농업고등학교 중퇴 후 부산으로 이주해 방통고와 동의대학교·한양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동서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2024년 단수 공천을 받아 민주당 배재정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처럼 출신지가 고르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영광군 전체가 정치적 인재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성향은 진보가 압도적... 단 1명만 보수 진영

정당별로 보면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힘 김대석 의원 1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성향은 진보가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안에 있었지만 계엄 해제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당별론 장종태, 정진욱, 조인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다. 손솔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했으나 원적은 진보당이며 임기를 마치면 진보당으로 복귀하게 된다.

서양진 의원은 서울대 신문학과를 졸업했으나 환경운동가로 활동해 왔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2번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당내 기후 위기 대응 전문가로 활약하면서 지난 5월부터는 원내 대표를 맡아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영광군, 지역 현안 해결...영광 인맥 기대감 커져

최근 장세일 군수는 군청을 방문한 손솔 의원과 '재생에너지 수익의 지역 환원',



전남 영광출신 더불어민주당 손솔 국회의원(왼쪽)이 18일 영광군청을 방문해 장세일 영광군수와 지역 현안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영광군제공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백수해안 노을길 관광지 조성', '법성 진성 국가 사적 지정',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장 군수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지방 소멸을 막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며 "대통령실과 중앙부처, 국회에 있는 영광 출신 인사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향 발전의 마중물이 돼 달라"고 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국회에서부터 적극 및 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영광 출신 국회의원들이 고향 영광과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영광군은 서로 색깔은 다르지만 지역 출신 국회의원 6명이 에너지 정책, 농촌 소멸 대응, 문화관광 자원화 등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레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레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문의 구레군 총무과 061-780-2307

구레고향사랑기부제란?

구레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구레군에 기부하고, 구레군은 이를 모아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법인불가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레사랑상품권
-구레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로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i-ONE Bank 하나
기업 하나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전라남도 구례군)

↓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전라남도 구례군)

↓

답례품 주문하기